

“배터리 수요 정체기… 위기를 도전·혁신의 계기로 삼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수익성 하락, 업황 탓 하지말고 ‘성장 전망’ 낙관하는 것 경계를”

“질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일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할 근성과 체력을 길러야 할 뿐 아니라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4일 오전 구성원들에게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립시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배터리 수요 정체기에 빠진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도전과 혁신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다.

김 사장은 “우리 역시 공격적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을 확보했지만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소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LG에너지솔루션

기술·공정 혁신이 더디어졌고, 구조적 원가 경쟁력도 부족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어려운 업황 탓으로 돌리거나 미래 성장 전망이 밝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미래를 낙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과거 배터리 분

야의 혁신을 주도하며 자리 잡은 일등이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자만심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편더멘탈(기초 체력) 강화’에 대한 집중을 강조했다. 기존 관행들을 과감하게 바꾸고 투자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현재,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 공격적인 수주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인력, 설비, 구매 등 분야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누구보다 먼저 시장을 개척하며 생긴 일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축적된 운영 역량과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속도 조절과 조직별 투자 유연성 및 효율성 재고에 나설 방침이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밝지만 미래를 주도할 진정한 실력을 갖추기는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업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며 조직 전체의 혁신을 가속해야 할 시기”라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ids@metroseoul.co.kr

부산항만공사

협력사 ESG 지원 참여

부산항만공사가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 부산항 협력사들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해운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는 대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 규제에 대응하며 현실적으로 ESG 경영 도입이 어려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인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동반위 성과공유제와 ESG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부산항 항만 생태계 전반에 ESG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기반을 다지고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부산항의 ESG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온라인 판매 두려움, 자신감으로… ‘e-러닝 교육’ 큰 도움”

대전 도안동 카페 ‘수레단’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사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참여 마케팅 전략·홍보기술 등 배워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카페 수레단.

“뜻하는 바를 마음의 수레에 가득 담아 동글게 잘 굴러가라”는 덕담이 담긴 수레단은 지역에서 정평이 난 곳으로, 전통음식 기능 보유자이자 떡 명장인 김명희 명장이 딸과 함께 운영하는 한식 디저트 전문점이다.

김 대표는 “오랜 시간 우리 떡을 연구하고 관련 외부 강의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여유가 생겨 조리과를 졸업한 딸의 권유로 2020년에 한식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김 대표는 퓨전떡, 정통떡, 풍미와 식감을 살린 진정한 맛을 고수하는 경영철



수레단의 대표 제품 호두강정.

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키워 전자상거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한 ▲디지털 특성화 대학 ▲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 e-러닝 교육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과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김

대표는 먼저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특성화 대학’에서 교육을 들으며 디지털 활용에 첫발을 내디뎠다.

가장 먼저 받은 교육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이었다.

그는 “나이도 있다 보니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수업이 있는 날이면 건양사이버대에 출석하며 관련 강의와 실습을 통해 디지털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e-러닝 교육을 수강하며 온라인 시장 준비 전략, 마케팅 전략, 홍보 기술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초를 탄탄히 쌓고 있다. 특히, 개별교육을 통해 실제 온라인 판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접하며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것들을 터득하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김 대표는 쿠팡의 ‘전통과자·떡 카테고리’에 판매 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지금은 전통 간식의 유통기한과 제작량을 고려해 수레단 카페 인기 메뉴인 ‘호두강정’만 단독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 방문자 리뷰와 인스타그램에 제품 제작 과정 영상, 신제품과 선물세트 사진, 매장 공지 사항 등도 꾸준히 안내하며 온라인상에서도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온라인 진출이 필수인 요즘 시대에 막막했던 온라인 활용 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부터 실습, 실제 운영 노하우까지 배우며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서 “디지털 특성화 대학과 e-러닝 교육은 온라인을 전혀 모르던 나와 같은 초보도 맞춤형으로 차근차근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 막상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만큼 망설이지 말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과 자생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Y브랜드’ 부스 이미지. /KT

KT

‘Y아티스트레이블’ 과 7일까지 서일페 참여

KT가 청년 브랜드 ‘Y아티스트레이블’과 함께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이하 서일페)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서일페는 올해 17회를 맞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전시회로, 다양한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참여한다.

KT는 4년 전부터 재능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을 선발, Y아티스트레이블을 구성해 브랜드 협업(에피드, LG생건 등)과 해외 탐방(Y원정대), 국내 도서마을 봉사활동(삼시도 꿈그림) 등 다양한 마케팅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서일페 ‘Y브랜드’ 부스도 운영해왔다.

올해 Y브랜드 부스는 KT 온라인 다이렉트 통신 브랜드인 ‘요고’ 캐릭터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 컨셉의 ▲Y아티스트존 ▲요고존 ▲Y브랜드존 3가지 섹션으로 구성했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두산에너지빌리티, K-원전 품질강화 앞장

협력사 현장 기술인들 초청 간담회

“세계 최고의 원전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이 원전 협력사 기술자들을 만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품질 강화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출범한 ‘K-원전 기술 서포터즈’의 일환으로 원전 협력사 현장 기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3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

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원전 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주요 협력사 기술인 18명, 관리자 3명, 두산에너지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종두 원자력BG장, 용접·가공·비파괴 분야 명장 3명 등이 참석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간담회를 통해 ▲품질 개선 우수사례 공유 ▲우수 기술인 시상식 ▲협력사 기술인의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협력사 기술인들은 두산에너지빌리티 기술명장들과 함께 창원 공장에서 기술을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 스마트팩토리 구축 속도

싱가포르 ARTC와 AI관련 NDA 체결

현대제철이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산하 연구센터(ARTC)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일 싱가포르 ARTC 본사에서 개방형 혁신 시스템 기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개방형 혁신 시스템은 싱가포르 정부, 대학, 기업 등이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며 기업이 필요한 기술

을 발굴하고 공동 개발하는 생태계를 말한다.

내부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의 아이디어, 기술, 전문성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현대제철은 기존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와 협력하고 있던 ARTC와 함께 제품 표면 결함 파악 등에 적용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한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철강 제조공정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